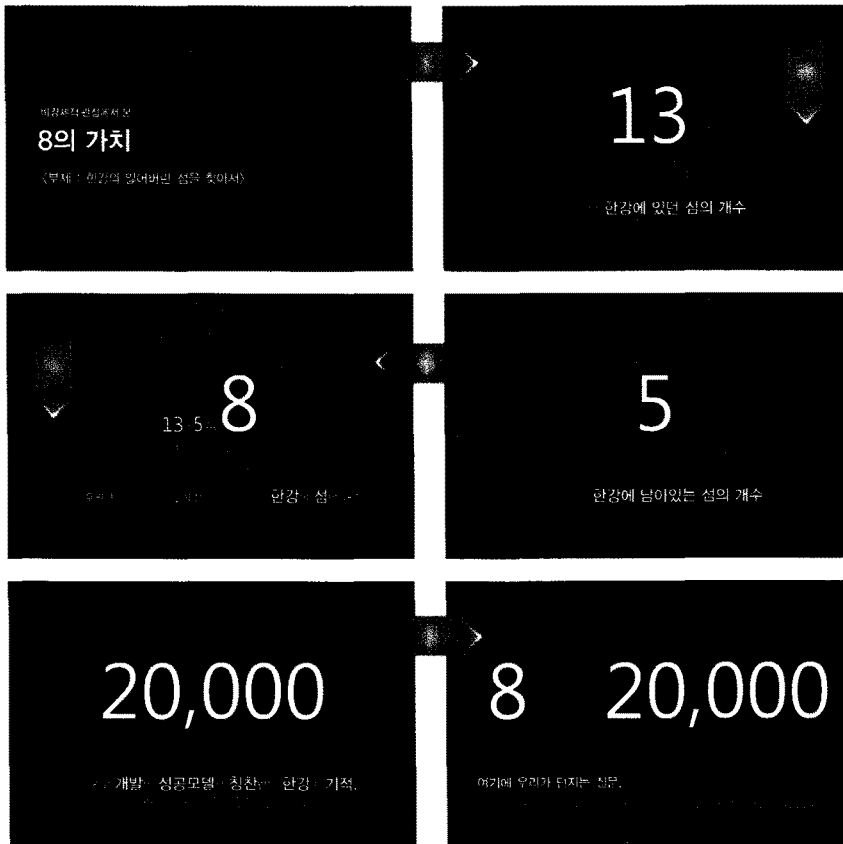




이자영 | (주)EDI환경디자인팀장
(ijy3331@hanmail.net)

한강의 잃어버린 섬을 찾아서 1



1. 한강의 기적과 8의 가치

비교적 빠른 시기에 개발도상국을 탈출, 선진국의 문턱 진

입을 앞둔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의 성공은 이제 많은 개발도 상국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이를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분명 잃은 것도 있다. 옛 선인들이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며 칭송했던 한강의 다양하고도 아름다웠던 풍광들과 그 속에서 향유되었던 문화와 교류, 그리고 자연... 경제지상주의 앞에서 우리가 소홀하게 놓쳐버린 것들이다. 필자는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물적, 비 물적 가치 중에서 '한강의 섬'¹⁾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물과 함께한 우리네 경관의 원천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과 함께한 우리네 경관의 원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리아스식 해변을 가진 나라이다. 곱게 뺨은 동해와 달리 심하게 구불거리고 뒤틀리는 남해와 서해안은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정화작용을 하게 된다. 국토 여기저기서 아가자기하게 튀어오르는 산봉우리들과 섬들은 대한민국으로 엮이는 우리들 마음속 풍경이고 경관의 원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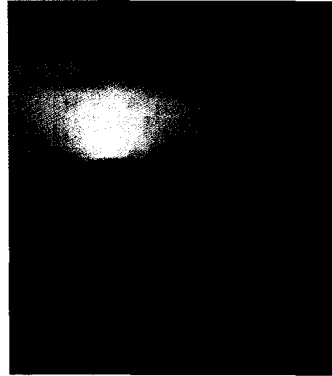
이러한 바다의 풍경이나 강의 풍경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의 70%가 산인고로 우리네 물들은 리아스식 해변처럼 구불거리고 뒤틀린다.

영산강을 찬미한 다음의 시를 읽어보면 강이 주는 형태적 미학과 시각적 감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와 함께 한국적인 경관의 원류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으니 잠시 음미하고 가자.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려온 물이
정자 앞 너른 들에 울음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나 말지,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쌍룡이 몸 뒤트는 듯, 긴 비단 펼친 듯
어딜 가느라 무슨 일이 바빠서 가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 모래밭은 눈같이 희게 퍼졌는데
어지러운 가리기는 무엇을 어르느라

앉았다 내렸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르는가.



손군(cozyro1) NAVER 포토갤러리에서

얼마나 구불거리기에 쌍룡이 몸을 뒤튼다는 표현을 했을까.. 마치 내 몸이 살짝 비틀어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비단 영산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강도 마찬가지이다. 옛 문헌이나 그림을 보면 한강은 원래 구불거리리는 가운데 모래사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섬이 나타나기도 했던 다이나믹한 풍경을 지닌 강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의 한강을 보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배경의 거대한 아파트단지이며 한강은 그냥 넓게 유유히 흐르는 조용한 강일 뿐..

필자는 이에, 선조들이 남긴 옛 자료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져간 섬들의 역사와 옛 풍경에 대한 단서를 이야기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뒷면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3. 원래 13개였던 한강의 섬

고지도와 문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속 한강의 섬'은 모두 원래 13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 현재 5개의 섬이 남아있으며 8개의 섬이 아예 자취를 감추거나 육지화되었다.

1) 참고로 여기서 언급되는 한강의 섬이라고 할 때의 범주는 서울의 행정구역을 범위로 하였음을 밝힌다.

현재 남아있는 섬	여의도, 선유도, 밤섬, 노들섬, 서래섬
사라지거나 유지화된 섬	난지도, 저지도, 뚝섬, 잠실섬, 부리도, 반포섬, 무동도, 무학도
인공섬	플로팅아일랜드(세빛둥둥섬), 서래섬

그런데 이글의 맨앞에서도 제기한 질문, 우리가 잃어버린(‘우리를 ‘인간’이라는 보편적 주체로 생각했을 때 명확하는 ‘없애버린’이 맞겠다.) 섬의 개수 8이 과연 한강의 가치를 통해 이른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들보다 작은 것일까? 단정하기 어려운 답이리라...

가령 이렇게 가정해보자.

가정 1. 하얀 모래사장과 섬들이 수놓인 한강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 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누비며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모래성쌓기 놀이도 한다.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화하며 자란 그 사람은 커서 남을 돕는 복지가 되거나 위대한 정치가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문화예술인 또는 건축가가 된다. 또는 요즘 시대에 맞게 정말 창의적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세계에 이름을 날린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는? 가치는 꼭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잖은가.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선사하는 가치도 있으니...

가정 2.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아파트촌에서 살았다. 한강이 가깝지만 가려면 큰 도로를 건너기 위해 토끼굴을 지나야 한다. 한강은 마치 탁한 물을 담은 어항 같다. 황사라도 있는 계절엔 누렁이까지 한다. 차라리 컴퓨터 게임이 훨씬 재미있다. 엄마에게 매일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더욱 오기가 생겨 게임에 몰두한다.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그렇게 산다.

너무 비약적이라 비난하면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또 이러한 가정이 무리가 아닌 것은, 오늘날 개발되는 많은 것들의 시초가, 가령 특허와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아름다운 풍경이 보존되어 있으면서 높은

삶의 질을 공통적으로 지닌 나라)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어내 세계를 열광시켰고 그에 질세라 우리나라의 S전자도 같은 종류의 제품을 내놓았지만 하드웨어나 성능은 더 나을지 몰라도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특히 고객들을 팬으로까지 만들어버린 감동은 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한다.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컸다면 그런 제품을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거기에는 교육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그중에 ‘오늘날의 우리 경관’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가정도 가능하리라.

가정 3. 왜 해방기 이후 정책가들은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 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였는가? 대학교 강의실에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진다. 과거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대안의 제시를 담은 그날의 토론은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할 때 과거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나중에 또 비판을 받을테지만... 결국 그러한 비판과 반성이 미래를 진보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이 생겨난다. 한강의 플로팅아일랜드처럼....

필자가 한강의 섬에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과거의 진실을 알고 그러한 선택을 했던 역사를 이해하며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이다. 그래서 최근 명품회사의 모피쇼로 질타를 받았던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해, 그 과정과 결과에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고 실행되었다는 부분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 많은 시민들이 모피쇼를 통해 ‘공공의 공간다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던져주었고 서울시는 반성했고 그러한 장소를 플로팅아일랜드가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마 앞으로도 많은 화두들을 던질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한강의 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자.



192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99년 8월 10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현재 버드나무, 물쭉, 갈골, 길대, 물억새 등 194종의 식물종과
 3해오라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꿩, 붉은머리오목눈이, 까치 등
 77종의 조류 서식

밤섬 면적 변화

폭마이후	4만 7490평
85년	5만 3630평
91년	6만 170평
96년	7만 1630평
02년	7만 5576평으로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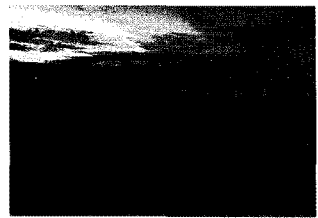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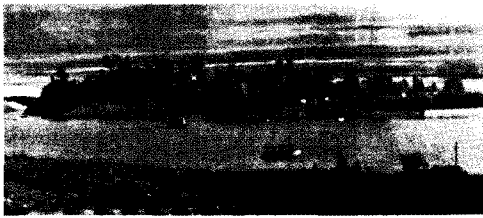
1968년 여의도 운주제 건설을 위해 토석과 모래를 밤섬에서 조달 (114,000m³의 잠석과 147,500m³의 흙) 지도상에서 밤섬 사라짐

1968년 밤섬 모습

1941년, 관공의 유모를 떠안은 백경의 그림 참조

밤섬
 여의도

밤섬과 여의도가 거처온 과정에 대한 모식도



왼쪽 : 6:25때 밤섬, 미상
 가운데 : 여의도(모르비치(lucky5975), NAVER 포토갤러리에서
 오른쪽 : 블루오션(bnw114), NAVER 포토갤러리에서

4. 여의도와 밤섬

여의도는 해방 후 비행장 개발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단위 주거단지와 상업, 공업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섬이라고 하기에 무색하게 변해버린 지금이다. 사실 여의도와 밤섬은 거의 붙어 있던 섬이다. 물이 빠지면 걸어 다니는 정도의 섬들이었는데 원래는 밤섬이 여의도보다 컸다고 전한다. 그런데 개발의 논리에 의해 밤섬의 모래들이 건설의 재료로 쓰이면서 섬은 사라졌고 여의도 중심으로 땅이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몇십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밤섬이 꼭 그 위치는 아니지만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한 개, 두 개의 모래알이 다시 모이고 쌓여서 모래섬이 되더니 그 위에 수

생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새들과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현재 밤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토록 자연의 자생력이란 경이로운 것임을 밤섬에서 다시한번 느낀다.

이제 스스로 다시 생겨난 밤섬은 그냥 지금 그대로 보존을 잘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여의도는? 여의도의 경우, 많은 고층 아파트들과 오피스 빌딩들이 있다. 그 옥상들을 전부 녹화를 하면 어떨까. 텃밭도 좋고 그냥 세덤류로 덮어도 좋다. 에너지 절감도 되고 옥상의 녹지들이 이루는 그린 스카이라인이 삭막한 여의도에 숨통을 터주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 섬이었던 여의도답게 '섬다움'을 회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